

# ARKO Young Art Frontier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 국립국악원 우면당 · 예약당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올림푸스홀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ARKO가 주목하는

## 젊은 예술가 시리즈

2014.01.10 - 03.02

구자혜, 김소은, 김주희, 김지선, 박우재, 박종빈, 손다혜, 양길호  
양승환, 연리목, 윤미현, 이아람, 이은지, 이희란, 정소정, 최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Arko HRD Center

##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적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조를 건인하며, 예술의 융성을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1973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문화예술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의 이해 능력이 뛰어난 현장 예술가를 비롯하여 예술경영, 법조, 언론 등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고충을 더욱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현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예술지원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5.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 신진예술가의 평생 후원자 ARKO, 그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최고의 신진예술가 육성프로그램인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을 통해 성장한 젊은 예술가들이 한 해 동안의 값진 결실을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에서 선발된 16명의 신진예술가들이 그동안 열정과 집념으로 준비한 공연작품들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서울 일원의 공연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2010년에 첫발을 내딛은 AYAF 사업은 그동안 신진 예술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예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인적기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단년도 지원금 지원을 통한 단발성 지원에 그쳐 안정적인 지원기반이 취약했고, 여러 기관간 유사 사업 추진 및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공모를 통한 단순한 재정지원 방식을 벗어나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시설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일대 전환하였습니다.

즉 국내의 분야별 최고 창작 및 공연제작 전문가들과 연계한 멘토링, 작품 조사·연구 지원, 해외연수 지원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였고, 탁월한 창작활동을 펼친 신진예술가에게는 세계 유명 창작거점(레지던스) 파견 기회 제공, 해외 아트마켓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가의 발굴·육성, 경력개발, 재교육 등 신진 예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인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애주기형 관리육성 추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노력만으로 위대한 예술가가 탄생되지는 않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선현들의 말씀도 있듯이, 국민의 관심과 애정, 문화예술인들의 젊은 예술가들을 향한 사랑과 열성적인 가르침, 젊은 예술가들의 뜨거운 정열과 불굴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위대한 예술가가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 예술혼이 충만한 16명의 차세대 예술가들이야말로 미래의 '문화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들은 우리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동량(棟樑)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진 예술가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미래 우리나라 공연예술 발전을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 16명이 펼치는 뜨거운 도전과 열정의 무대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치상실의 시대에서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예술가들의 비상<sup>飛上</sup>과 연대<sup>連帶</sup>를 기대하며

### 안경모

2013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  
심의위원 및 멘토  
연출가,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예술 창작자들에게 공모가 진행된 게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을 기준대상으로 희곡작가, 연출가, 극작가, 안무가, 작곡가 등 창작자를 위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총 129명의 창작자들이 신청하였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4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예술적 기량과 성장 잠재력, 독창성과 참신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가 주요한 심사기준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를 장르를 통합하여 심사했던 것입니다. 이는 차세대예술가들의 활약이 장르 내부적으로만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2차 실연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16명의 창작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역시 장르를 통합하여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창작자들의 활동은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소임은 스스로의 예술창작역량을 키워 그 결과를 공연으로 가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계획에 맞춰 교육과 체험을 진행했고, 조사연구와 작품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계 멘토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중간점검을 받았습니다. 매서운 비판과 독려, 해안을 모색하는 뜨거운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과정들 거쳐 이제 그 결실로 공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에 호불호를 떠나서 창작자들 개인에게나 이들을 바라보는 정책·행정가들에게나 공히 많은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예술가에게 세대를 칭한다는 건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2~30대를 신진, 4~50대 이상을 기성이라 하기엔 이 같림은 모호하기만 하고, 이른 기성이나 늦깎이 신진의 진입을 가로막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진은 참신하고 기성은 노련하다고 구분하기엔 참신과 노련이 예술가의 절대적 숙명이기에 이 또한 부정확하기엔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예술가란 사회문화적으로 고정된 관념을 뼈뼋히 바라보는 덜 자란 아이이자, 인간에 대한 통찰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선 다 자란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이란 아직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존재라는 인상은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정의임에도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예술창작자들이 모아졌습니다. ‘차세대라 불리어져야 할’ 예술가라기보다는 스스로 ‘차세대라 불리고 싶은’ 예술가가 더 올바른 정의가 될 듯합니다.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으로 미래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 래서인지 이들을 선정하고 평가했던 예술계 인사들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미래 예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온전히 다 투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차세대’에 대한 매몰감이 아니라 미래 예술에 대해 함께 합의하고 함께 실천하고자하는 일종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본만능사회에서 점점 인본적 가치를 잃어가는 우리 시대에서 ‘차세대’ 예술가들을 향한 ‘차세대와 구분되어진’ 예술계 인사들의 애정과 격려이자 공동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차세대’들의 결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겨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이 많은 시간과 자금이 쓰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릇됩니다. 왜냐하면 ‘차세대’를 향한 자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자부심에 흥분했고, 또한 스스로의 모자람에 절망했으며, 혹독한 비판에 얼굴 붉혔고 작은 칭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한껏 자극하고 격려했습니다. 움츠린 몸 사이로 화려한 날개를 펴는 시간이었었고, 함께 어울려 연대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니다.

이 소중한 과정의 혜택은 ‘차세대’들이 누리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쓴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차세대’를 기대하는 한 예술가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분들과 특히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과정을 통해 화려한 비상을 펼치는 ‘차세대’예술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 관계 맺기 위한 실험과 모색

### 이동민

2013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  
제작프로듀서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대표

미완성의 상태이지만 자신만의 독특함을 무기로 실험하고 모색하는 출발선상의 예술가들에게 자극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마련된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은 연극(연출), 무용(안무), 연극(희곡) 이외에도 음악, 전통예술, 다원분야까지 확대되어 2103년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 가능성 있는 예술가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행초기에 발생하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있지만, 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원철학아래 설계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행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16명의 신진예술가들은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가볍게는 상담창구부터 깊게는 작업을 풀어내면서 부딪치는 여러 요소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각과 조언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더불어 본인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 등 다채로운 형태의 지원까지, 사실상 한국의 예술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예술가 지원 제도였습니다.

제작프로듀서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관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선발된 신진예술가들의 예리한 감성의 촉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들의 생각이 제작과정을 거쳐 공연이라는 단계까지 가는 동안 최대한의 완성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획적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오브제의 독특함으로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던 반면, 예술가 내부의 내밀한 고민과 생각은 알지만 초기의 자신의 구상에 못 미치고 중간 어디 즈음에선가 날카로운 날 세우기를 멈춘 듯 한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 또한 같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대중의 언어로 외부와 얘기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 하는 현상이 이번 사업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예술가 자신의 내밀한 창작세계를 결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독립예술가로서 본인의 작업 및 활동반경을 넓혀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기술이고 또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출발선상의 신진예술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물질 지원뿐만 아니라, 공연이라는 결과물을 내는 데 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예술가 자신이 직접 꾸려보도록 해서 이후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발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신진예술가들 대부분이 기획에서 제작, 발표까지 오롯이 자신만의 단독무대를 가지지 못하고, 기획공연이나 축제 등에 일종의 출품이라는 형식으로 발표와 소통환경을 가졌던 터라 기획에서 홍보, 마케팅, 공연장 섭외, 스텝운용 등 전반을 스스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이자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제작프로듀서로서 선발된 신진예술가들의 작업 성격과 맞는 발표공간을 찾는 것, 협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대중사회와 자신의 작업을 소통하는 장치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작업에 최우선의 방점을 찍고 거기에 부합하는 외형적 틀이나 형식을 찾아내는 것 등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참 많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엔 기존 멘토링 제도와 더불어 제작프로듀서라는 장치도 사업초기부터 동반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신진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자극과 계기를 제공한다는 지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덧붙여 본 사업과 창작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계맺기를 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파격의 기획/실행환경을 적용하고 실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철학의 명확성과 이에 부합하는 실행의 지속성일 것입니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 Program

다원예술	김지선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01.10(금)~01.11(토)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무 용	김주희	Earthling	01.24(금)~01.26(일)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음 악	연리목	여기서 자자	02.7(금)~02.08(토)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전통예술	이아람	이아람 독주회 - 2014 살아가다	02.13(목)	국립국악원 우면당
연 극	정소정	러브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	02.14(금)~02.16(일)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다원예술	최은진	신체하는 안무	02.14(금)~02.16(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연 극	구자혜	모래의 여자	02.18(화)~02.23(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무 용	양길호	허의 기억	02.19(수)~02.21(금)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다원예술	박종빈	전야	02.20(목)~02.23(일)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연 극	윤미현	젊은 후시딘 - 어 러부 스토리	02.21(금)~03.02(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전통예술	양승환	양승환의 집단 즉흥 창작	02.21(금)	국립국악원 예악당
다원예술	이희란	역사의 현재	02.24(월)~02.25(화)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음 악	이은지	시간의 향기	02.27(목)	올림푸스홀
전통예술	박우재	박우재거문고더하기 - 이상변이	02.27(목)~02.28(금)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전통예술	손다혜	작곡가 손다혜의 음악 그리고 이야기	02.27(목)~02.28(금)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다원예술	김소은	경계	02.28(금)~03.02(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사업 AYAF

ARKO Young Art  
Frontie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예술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예술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장르별 구분에서 탈피하여 창작자와 실연자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129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연 또는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16명의 젊은 창작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해외 예술현장 체험활동과 창작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창작과정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두 차례에 걸친 작품 기획안 발표 및 전문가 그룹의 멘토링, 제작프로듀서와의 매칭을 통한 작품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사연구비, 작품제작비 등 기금지원 외 시설 및 교육지원 등 창의적인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공연예술분야)에 선정된 16명은 창작역량 강화 및 작품제작을 위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작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발표합니다.

### 공연예술분야창작자 16명 선정('13.4월)



-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9명 중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연 또는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16명 선정
- 기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분야별 선정방식에서 탈피, 공연예술분야로 통합 선정

### 오리엔테이션 개최('13.5월)



- 선발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 사업진행사항 설명 및 서로 간 사업내용 공유를 위한 사업계획 발표 등

### 연구조사 활동('13.6~12월)



- 신진예술가 역량강화 및 품준비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신진예술가가 직접 계획을 수립, 추진

### 해외 예술현장 체험('13.7~8월)



- 해외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 및 워크숍 등 직접 참여

창의적인 젊은 예술가 육성을  
위해서 함께 힘 써주시는 분들

공연화, 김기영, 김서령, 김성희  
문효원, 박병성, 박상연, 손호성  
안경모, 오준석, 원 일, 유은선  
이동민, 이수용, 정순민, 조성주  
지영관, 최용훈, 허명진, 홍승찬



#### 신진예술가 성장과정에 필요한 교육 추진('13.8~'11월)



-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관심 분야 등 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구성, 제공
- 댄스랩 서울(DancelAB Seoul), 미디어워크숍 "뷰직", 지원신청 방법 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가 시리즈 조영 및 무대디자인 초청 강연 등

#### 작품 발표를 위한 기획안 보고 및 전문가 멘토링('13.8/10월)



- 두 차례에 걸친 창작과정 및 기획안 발표와 작품을 구체화시키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 그룹의 멘토링

#### 제작프로듀서에 의한 제작과정 교육 및 컨설팅('13.10~'14.2월)



- 제작프로듀서와 신진예술가와 1:4 매칭을 통한 작품 제작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작품 발표 ( '14.1~2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작품 발표회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1

# 김지선

계원예술대학교  
시간예술학과

다원예술

### 활동실적

- 2012~2013 r:ead (Residency East Asia Dialogue)(도쿄, 일본)
- 2012 <Anti.no.made tour>(백남준 아트센터)
- 2012 <Well-Stealing>(Tbilisi Triennial, Georgia)
- 2012 <Cracking the system>(Truth is concrete, Steirischer Herbst, Graz, Austria)
- 2012 노마딕 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흙스쿨, 몽골)
- 2012 <웰-스틸링 Well-Stealing> 페스티벌 봄(광화문 광장 일대)
- 2011 <Stocks 3, 이주민 이주> 페스티벌 봄(서강대 메리홀)
- 2010 <해밀톤> 19금 퍼포먼스 릴레이(공간 해밀톤)
- 2010 <No man's land>(공간 해밀톤)
- 2010 <FLOWERBYDOERS> 얼루어 매거진 주관 환경 캠페인(NS 서울 타워)





#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공연일시 2014.01.10(금)~01.11(토) 금 8시, 토 5시  
공연장소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주요 참가자 연출\_ 김지선 드라마투르그\_ 강윤지 조연출\_ 박정민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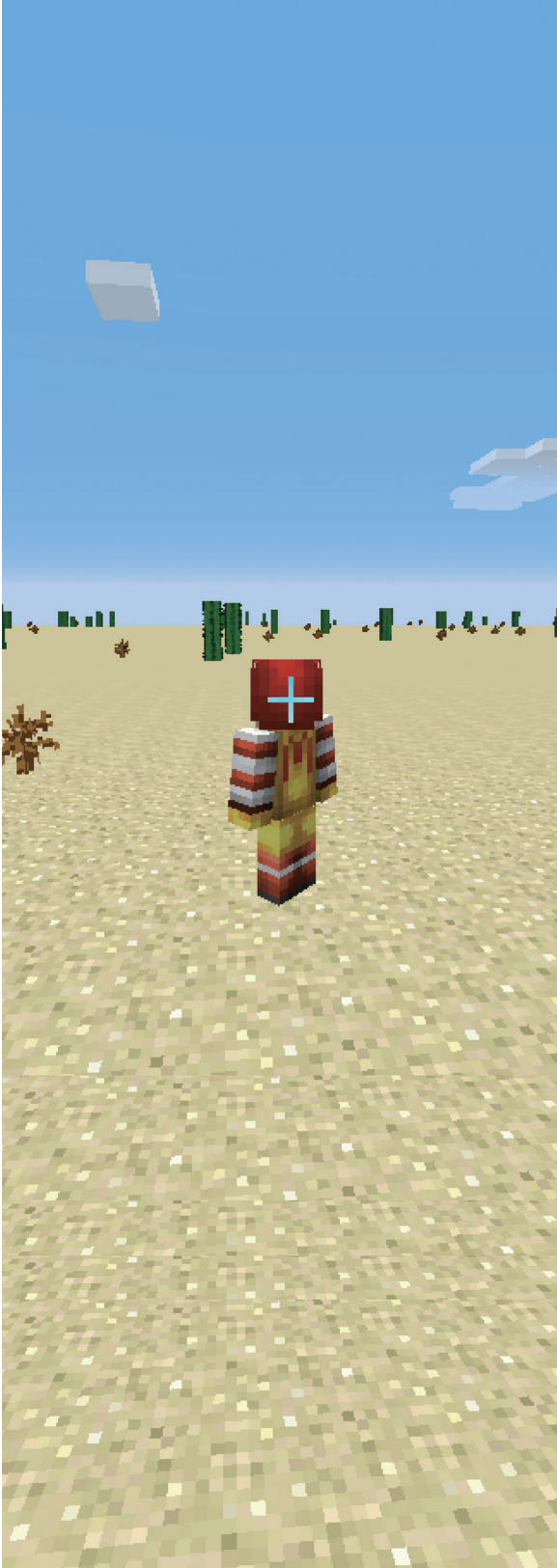
울퉁불퉁한 현 세계의 흔들의자에 앉은 인류학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인류와 비인류의 최린이자 최후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현 인류에 대한 보고가 아닌 재고이자 새로운 생존방법의 모색이다.

## 작품설명

이 곳은 세계인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네...  
다행히 복구를 했다만, 여기는 홀로그램일세

인류학 초기에 학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무역상들과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흔들의자에 앉아 받아 적는 것으로 인류학 보고서를 작성하고는 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모인 자리는 흡사 이러한 흔들의자 인류학을 연상시킨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얻은 정확하지 않은 세계의 B급 뉴스를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세계의 호외 양상이다.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에서 흔들의자에 앉은 인류학자는 누구이고, 대면한 이는 무엇일지 공공이가 시작된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2

# 김주희

상명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전문사 창작과

무용

### 수상경력

- 2006 한국현대무용협회 공쿨 단체 현대무용 일반부 안무 금상
- 2006 전국신인무용 공쿨 현대무용 일반부 여자 개인부분 차석상
- 2005 전국대학무용 공쿨 현대무용 대학부 동상
- 2005 한국현대무용협회 공쿨 현대무용 여자 개인 금상
- 2004 Korea America Dance Festival scholarship

### 활동실적

- 2013 연극, 봄작가겨울무대 <뒤주박죽> 안무(부새롬 연출)
- 2013 연극, <벗나무 그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한 가문의 몰락사> 안무(김승철 연출)
- 2013 무용 <완벽한 사랑> 안무/출연
- 2012 무용 <Death2> interpreter로서 작업(류경아 안무)  
Théâtre des Doms et Wallonie Bruxelles International in Avignon,  
Espace Senghor
- 2012 무용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Driftriss> 출연(성한철 안무)
- 2012 무용 <Death2> interpreter로서 작업(류경아 안무)  
Théâtre des Doms et Wallonie Bruxelles International in Avignon,  
Espace Senghor
- 2012 무용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댄스주최 <본능> 출연(안좌르무용단)
- 2012 연극 명동예술극장기획 <돈키호테> 출연(빅토리엔 사르두 작, 양정웅 연출)  
외 다수 출연
- 2011 연극 <햄릿업데이트> 공동창작 및 출연(극단 여행자)
- 2009 연극 CJ영페스티벌 연극부분 우수상 <타이타스> 출연(박해성 연출)
- 2009 무용 CJ azit 주최 고전을 재해석하는 삼색 듀엣 <एको와 나르시스> 안무/출연
- 2007 무용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댄스컬렉션 <ing> 안무/출연
- 2007 서울시주최 공공미술프로젝트 불광천 <그림자놀이> 안무/출연



# Earthling

공연일시 2014.01.24(금)~01.26(일) 금 8시, 토~일 5시  
공연장소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주요 참가자 안무·연출\_김주희 출연\_현지에/성한철/조형준 드라마트루그\_최선영  
무대\_신승렬 조명\_강지혜 음악\_지미세르 영상\_김비오 사진\_김형욱  
디자인\_권소희 일러스트\_최현정 무대감독\_김상보 기획\_김경진  
진행\_최경훈

## 기획의도

나는 이번 여름 네팔에서 열린 가이자트라축제를 참관했다. 한 해 동안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축제로 각 집안마다 죽은 이의 영정을 걸고 행진을 한다. 그 행진 가운데 우연히 내 눈에 띄인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탈을 쓰고 맨발로 춤을 추며 그 행동을 반복해 걸어갔다.

그 아이의 움직임은 서툴렀으나 자연스레 비춰진 뒷모습과 잔 근육에는 전문 무용수 못지않은 아름다움이 있었다. 네팔의 환경을 보았을 때 분명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축제를 준비하진 않았을 것이며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 아이의 삶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몸의 형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 본연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건지를 짧은 순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아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만든 것은 그 아이의 삶을 채우고 있는 사상, 문화, 감정, 사람, 환경 등 수 많은 요소들일 것이다. 그것들 간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 안에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모습이 자신 본연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이 순간에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 작품설명

### 흘러가는 대로, 피어나는 대로

피어나기 이전의 고요함이 있었다. 그리고 말이 생겨나면서 형태가 생기고, 우리는 말로써 많은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 과거의 나도 아닌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일보다도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이 땅을 더 지지하고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3

# 연리목

서울대학교 작곡과

## 음악

### 주요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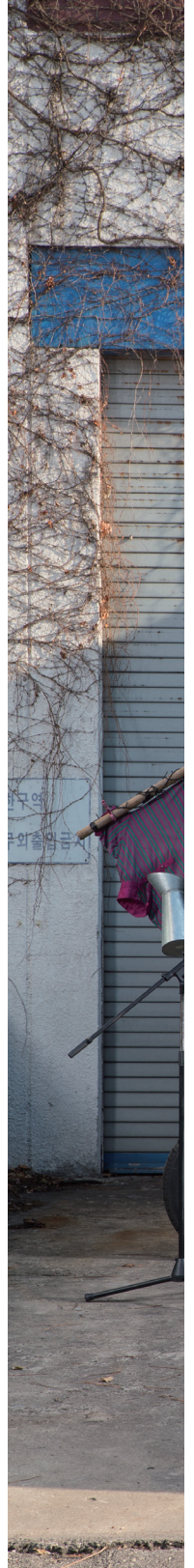
2002년~현재 밴드 눈뜨고코베인 키보디스트(인디 락밴드)  
2007년~현재 트러스트현대무용단 음악감독(작곡 겸 음악감독)  
2009년~현재 공연창작집단 뮈다 객원 음악감독(작곡 겸 음악감독)  
2010년~현재 밴드 타니모션 작곡, 연주자(국악 퓨전 그룹)  
2012년~현재 음악당 달다 대표(음악극단)

### 수상내역

2013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대상 수상  
2011 국악창작곡 개발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2011 창작국악실험무대 천차만별콘서트 우수상  
2010 국악창작곡 개발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장려상

### 활동실적

2014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작곡/음악감독  
2013 국립극단 <노란 달> 작곡/음악감독  
2013 웹툰 <미생> 프리퀄 무비 작곡/음악감독  
2013 음악당 달다 <랄랄라쇼>/과천축제 공식초청, 하이서울페스티벌 국내초청  
2013 공연창작집단 뮈다 <고통에 대한 명상> 작곡/음악감독  
2012 트러스트 무용단 신작 <Yesterday> 작곡/음악감독  
2012 타니모션의 굿 음악 콘서트 <새 곳 프로젝트> 작곡  
2012 영화 <은교> 작곡/음악감독  
2012 공연창작집단 뮈다+인도 합작 공연  
<Bahuchara Mata : The 3rd Sex> 작곡/음악감독  
2012 LG 영화음악∞음악영화 프로젝트 작품 <말로는 힘들어> 작곡/음악감독  
201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로고송, 퍼레이드송 작곡  
2011 뮈다 & Snuff Puppet 대형인형극 프로젝트 <송노인풍당면> 작곡/음악감독  
2010 트러스트현대무용단 <SYS-선택되지 않은 시간> 작곡/음악감독  
2010 공연창작집단 뮈다  
<광대난장 맥베드 - 내가 그랬다고 너는 말할 수 없다> 작곡/음악감독  
2009 여성공공미술프로젝트 <메트로폴리스999>  
2009 영화 <자위의 왕> 작곡, 음악감독  
2009 트러스트무용단 데칼로그(2009 아르코 공동제작) 작곡/음악감독  
2009 공연창작집단 뮈다 신작 <앨리스프로젝트> 작곡/음악감독  
2008 트러스트무용단 정기공연 <Third Turn> 작곡/음악감독  
2008 플레이백 씨어터 <목요일오후한시> 음악감독  
2008 트러스트현대무용단 <Splash> 음악  
2007 영화 <청계천의 개> 출연(2008 서울독립영화제, 로테르담영화제)  
2007 트러스트현대무용단 <올리브나무> 작곡/음악감독





# 여기서 자자

공연일시 2014.02.07(금)~02.08(토) 금 8시, 토 6시  
공연장소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주요 참가자 작곡\_ 연리목/이정훈 연출\_ 연리목 무대\_ 김경희/송성원 의상\_ 이진희  
음향\_ 장태순 조명\_ 최은정 무대감독\_ 김승준 기획\_ 조경미  
사진·영상\_ 김상태 그래픽디자인\_ 김상태 홍보·마케팅\_ 박인혜/허미성

## 기획의도

무대음악과 영상음악을 지속적으로 작업해오면서,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작업들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고, 무미건조한 신(scene)에 음악을 입혔을 때 배우나 무용수들이 받는 폭발적인 시너지는 계속 무대 음악 작업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작품에 음악을 입힌다는 것은 그 작품이 끝나면 음악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퍼포먼스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은 퍼포먼스와 함께 해야 완벽한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공연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작곡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타니모션'과 '눈뜨고코베인'에서도 음악적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무대 음악과 영상 음악을 꾸준히 해 왔기에, 공연예술로써의 음악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동기에서 이 작품은 기획되었다.

## 작품설명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수집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두 명의 떠돌이 악사에 대한 이야기

온 세상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모은 물건들을 수레에 주렁주렁 달아 끌고 다닌다. 그 물건들에는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아찔한 모험 이야기, 슬프고 억울했던 이야기, 화려했던 시절의 추억 등 갖가지 사연들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사연을 멋진 연주로, 때로는 익살스러운 노래로 들려준다. 두 명의 떠돌이 악사가 들려주는 음악은 그들이 떠돌아다닌 세상만큼이나 다양하다. 한국의 구슬픈 뽕짝부터 포크락, 집시음악, 현대음악, 중동의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이 섞여 이 연주된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려주려 하는 것 같다.

〈여기서 자자〉는 음악 고유의 에너지에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와 오브제가 더해져 들을 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공연이다. 사람이 가득 쌓인 기이한 수레는 그들의 이동수단이자 공연무대이며, 소중한 집이기도 하다. 집의 형태를 한 수레가 공연무대로 변신을 하게 되면, 곳곳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 악기로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선보이며 공간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4

# 이아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예술전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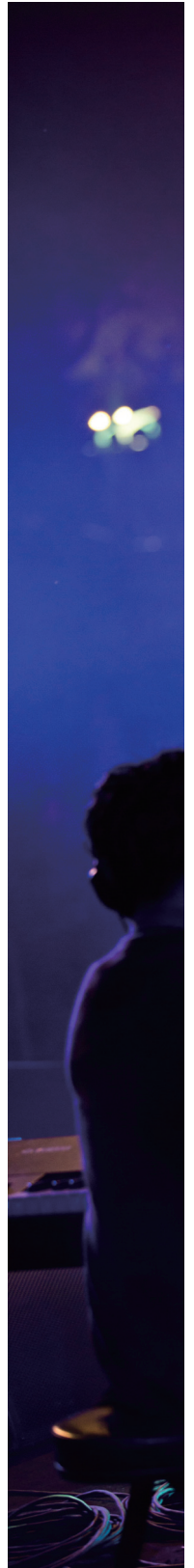
## 전통예술

### 수상내역

- 2013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작품 〈자〉(안무 김재승, 음악 이아람) Grand Prix
- 제3회 PADAF : 프로젝트 홀(연출 임선경, 안무 박수정, 음악 이아람) 〈나비가루〉 대상
- 2002 제18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 2001 제21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은상

### 활동실적

- 2013 제4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시나위 2013〉  
(Xavier Dessandre Navarre, Kayip, Jean Oh, Aram Lee)
-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 국악 가상악기(VSTI) Source Recording - 대금, 소금, 단소, 훈
- 2013 KBS 대기화 3부작 〈악귀-8일간의 기록〉 작곡 및 Co-Producer(Producer-정재일)
- 2013 서울역 아트플랫폼 〈현대예술 만만하게 보기 : 자〉(안무 김재승), 〈시나위 2013〉  
음악감독
-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 선정
- 2013 제2회 북촌우리음악축제 이아람 독주회 〈살아가다 2013〉
- 2013 Mahola Company 신작 〈교감〉(안무 김재승) 작곡 및 음악감독(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2013 가아금 독주곡 〈Circle〉, 중주곡 〈나비가루〉 작곡 및 초연
- 2013 〈판의 아리랑〉(작곡 원일) 초연 협연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정기연주회 〈아리랑, 비상하다〉
- 2012 음반 〈춤을 위한 음악 - 취봉 김백봉 '무봉'〉 음악감독
- 2012~2013 Black String World Tour - 폴란드, 영국,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 2012 천차만별 콘서트 〈이아람 & 우민희〉 듀오 콘서트
- 2012 이아람 독주회 〈살아가다 2012〉
- 2012 무용 〈꼭두각시놀음〉, 〈각황전〉, 〈췌! 탈들이 온다〉, 〈연〉, 〈혼몰이〉 작곡 및 음악감독  
한국음악앙상블 바람꽃 World Tour -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콜롬비아
- 2009~2010 숨 콘서트 〈공간에서 숨 쉬다〉 공동작곡 및 음악감독
- 2008 대금산조 다섯유파전 2008 기획 초청 독주회 〈한범수류 대금산조 전바탕〉
- 2007 평론가초청시리즈 〈시선과 율림〉 독주회





# 이아람 독주회 2014 살아가다

공연일시 2014.02.13(목) 7시30분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주요 참가자 작곡\_ 이아람 구성\_ 이아람/신현식/정재일 사운드 디자인\_ 카입(Kayip)  
출연\_ 신현식/카입(Kayip)/정재일/김재승/황민왕/성시영/이준  
음향\_ 김병국 조명\_ 공연화 무대감독\_ 박기남 홍보\_ 비온뒤 사진\_ 나승열  
대본구성\_ 임선경

## 기획의도

이아람의 창작행위는 한국전통음악의 동시대성과 즉흥적 상호작용에 그 뼈대를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장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연주자 중심의 창작을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삼는다. 이는 전통으로부터 계승되는 '음악하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이며, 전통 음악이 현재 살아있는 '동시대성'을 갖게 하는 동기이다. 예술가는 함께 존재하는 공간을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하고 창조한다. 그들은 긴밀하게 상호적이며, 또한 즉흥적이다. '살아가다 2014'는 관객들에게 한국음악이 단순히 전통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함께 살아있는 생생한 음악임을 제시한다. 또한, 동시대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장을 보여준다.

## 작품설명

이아람은 타 장르 예술가들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협업을 통하여 전통음악의 동시대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레퍼토리를 넓혀나갔다. 그 동안 자신의 음악활동을 통시적으로 꿰뚫어 보았던 '살아가다 2012', 즉흥의 상호작용을 실험하며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꾀했던 '살아가다 2013'에 이어 이번 독주회 '살아가다 2014'는, 이아람에게 음악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던 동료 선·후배 예술가들과 함께 꾸민다.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신성 카입(Kayip)과 함께 연주하는 이찬해 작곡의 '대금 독주를 위한 숨', 멀티아티스트 정재일과 함께 하는 '환(환)'이 연주된다. 그리고 안무가 김재승, 타악연주자 황민왕과의 트리오 '자(子)', 성시영의 피리와 이준의 가야금과 협연하는 이아람 작곡 '나비가루', 'Circle'이 무대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아쟁의 젊은 명인 신현식과 함께 구성하여 연주되는 '시나위 2014'는 동시대의 시나위가 살아 숨 쉬는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1. 나비가루 작곡\_ 이아람 연주\_ 성시영/이준/이아람
2. Circle, 자 안무, 움직임\_ 김재승 작곡, 구성\_ 이아람 연주\_ 황민왕/이아람
3. 대금 독주를 위한 숨 작곡\_ 이찬해 사운드디자인\_ 카입(Kayip) 연주\_ 이아람
4. 환(환) 구성, 연주\_ 정재일/이아람
5. 시나위 2014 구성, 연주\_ 신현식/이아람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5

# 정소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전문사(MFA)

연극

### 수상경력

- 2013 <비밀친구> 서울연극협회 아름다운연극인상 수상
- 2012 <모래섬>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 2012 <가을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우수작품상
- 2012 <뿔> 한국공연예술센터 봄작가 겨울무대 최우수작 선정

### 활동실적

- 2013 <가을비> 일본 동경 2013 베세토 연극제 공식참가작
- 2013 <뿔> 안산예술의전당, 작(김관 연출)
- 2013 <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작(김관 연출)
- '2012 봄작가 겨울무대 최우수작' 재공연
- 2013 <비밀친구> 혜화동 1번지, 작(윤한솔 연출), 혜화동 1번지 '아름다운 동행'
- 2012 <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작(김관 연출), '2012 봄작가 겨울무대' 참가작
- 2012 <가을비> 일본 동경 타이니알리스극장, 작(김세일 연출),  
2012 타이니알리스페스티벌 참가작
- 2012 <가을비>(장막) 밀양연극촌, 작(김세일 연출),  
2012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연출가전 참가작
- 2012 <가을비>(장막) 가마골소극장, 작(김세일 연출), 일본 모즈기획 제작
- 2012 <모래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작(심재찬 연출), 신춘단막전
- 2011 <검은 백조가 사는 곳> 동송무대, 작(이현빈 연출), 대학로 백페스티벌
- 2011 <가을비>(단막) 계림극장, 작(김세일 연출), 연희단거리패 젊은 극작가전



# 러브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

공연일시 2014.02.14(금)~02.16(일) 금 8시, 토~일 6시  
공연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주요 참가자 작\_ 정소정 연출\_ 적극 음악\_ 임준규 [영상] 작·연출\_ 정소정  
촬영·조명\_ 노진우 편집 및 후보정\_ 이민석/최양현 조연출\_ 고두현  
출연\_ 민대식/김구경/이태린/임정희/김윤찬/지희정

## 기획의도

### 작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 수 있는 연극이란?

극작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 수 있는 연극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 답이 없지만 우선 질문부터 던졌다. 답이 없는 질문인데, 우선 던지고 답을 찾아나갔다. 끝까지 답을 찾지 못 하더라도 질문은 유효하다는 믿음으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 했다.

## 작품설명

이 연극은 한 편의 러브스토리를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객들은 자신만의 러브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작가가 제시하는 러브스토리를 만나게 된다. 지금껏 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과 영상으로 촬영한 러브스토리 등을 스스로 작가가 직접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2013년 연극 '뿔'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극작가 정소정과 어디에나 끼어둘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연극형식을 탐구하며 <다페르류토 스튜디오>를 이끌어온 연출가 적극이 함께한다. 또한 크라잉넛, 노브레인과 함께 대한민국 1세대 밴드로 분류되는 레이지본이 음악과 영상촬영으로 참여해 재미를 더해준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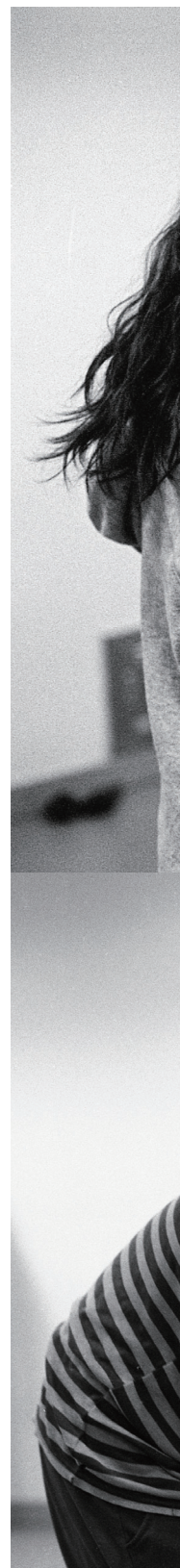
# 최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 다원예술

### 활동실적

- 2012~2013 수원문화재단 2012 신진예술가 지원 마을무용프로젝트  
〈이것도 춤이다 - 안녕 요놈의 몸동아리아〉 댄스프로젝트 아하 주최
- 2012~2013 융복합 예술 R&D 프로젝트 확장하는 다원예술 사유하는 신체팀 참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가네사프로덕션 주최
- 2012 Playtime 〈사공물신체〉 문화역 서울 284(공동 연출)
- 2012 대안공간 눈, 행궁동사람들 〈맛땀〉
- 2011 성암아트홀 뉴폼뉴스테이지 〈Things we want〉
- 2010 Gallery 175 기획전 〈하는 전시 - 벽과 기둥과 방, 틈 위로 아래로〉
- 2009 물레예술공장 토요춤판 〈틈〉



# 신체하는 안무

공연일시 2014.02.14(금)~02.16(일) 금~토 8시, 일 5시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주요 참가자 안무\_ 최은진 출연\_ 위성희/윤상은/최은진 사운드\_ 이강일  
과정크리틱\_ 최은혜 사진·티저영상\_ 장우제 영상\_ 정다을 무대디자인\_ 장현준  
조명\_ 공연화 기획\_ 박현미 디자인\_ 안마노 무대감독\_ 김진우

## 기획의도

'안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일련의 신체적 수행시퀀스를 통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체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체의 물리적인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신체를 작동하게 하는 생각, 감각, 감정,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을 어떻게 지각할지 신체의 태도를 순식간에 지정해버리는 습관적 시스템 또한 '안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섬광과도 같이 빠르게 일어나는.

## 작품설명

하여, 우리는 이미 안무작용을 내포한 주체로서의 신체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퍼포머들은 매 순간 자신들의 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신체는 관찰을 통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운동하게 된다. 오직 자신을 더 잘 알려는 이유만으로, 안무적 신체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본연의 안무가 발생하게 되는 순간이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7

# 구자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아르코공연예술아카데미 수료

연극

### 활동실적

- 2014 연극 〈먼지섬 an island made of dust〉 작
- 2012 〈웨이팅 룸 waiting room〉 작/연출
- 2012 연극 〈여기는 당연히, 극장 This is Definitely the Theater〉 작/연출
-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최, 한국연출가협회 후원  
제13회 신작희곡페스티벌 〈먼지섬 an island made of dust〉 당선



# 모래의 여자

공연일시 2014.02.18(화)~02.23(일) 화~목 8시, 토 4시, 7시, 일 4시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주요 참가자 각색·연출\_ 구자혜 출연\_ 윤현길/백석광 무대미술\_ 김은진  
보이서(voicer)\_ 김진영 조명디자인\_ 오용민 의상디자인\_ 김우성  
분장디자인\_ 장경숙 사운드디자인\_ 우정인 기획\_ 조하나 사진\_ 김도웅  
무대감독\_ 이범석 조연출\_ 김석기

## 기획의도

### 아베 코보 원작 소설 〈모래의 여자〉를 공연으로

한 인간이 타의에 의해 불합리한 세계에 던져진다. 그 세계는 불합리하므로 그 인간은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다. 그 인간은 언젠가 벗어나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은 그 인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흐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간은 불합리한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될까. 불합리한 세계. 아베 코보는 소설 〈모래의 여자〉에서 '어쩌면,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힘의 절대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저항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그 세계. 결국,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떠나지 않는 것일까? 불합리한 세계에 갇힌 인간이 그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조용히, 관객에게 직면시키고자 한다.

## 작품설명

한 여자가, 모래 구덩이 안에 살고 있다. 모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매일 밤을 새워 모래를 퍼내야 하는 곳. 밤에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산 아래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곳. 모래를 퍼내야 물과 식량을 보급 받을 수 있는 곳. 여자는 이 모래 구덩이에서 혼자서 긴 시간을 살아오고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이곳으로 내려온다. 남자는 자신이 타고 내려온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모든 노력이 좌절된다. 여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한 남자가, 여름휴가를 맞아 곤충채집을 하기 위해 끝없이 모래가 펼쳐져 있는 해안으로 떠난다. 그 날, 남자는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한 여자가 살고 있는 모래 구덩이로 내려온다. 남자는 여자를 보며 모래를 퍼내기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타고 내려온 사다리가 사라지고 남자는 자신이 모래구덩이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자는 모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만 모든 노력이 좌절되고, 삼을 잡고 모래를 퍼낸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남자는 만화책을 보며 킥덕거리고 있고, 여자가 자신의 옆에서 말없이 부엌을 하고 있다. 남자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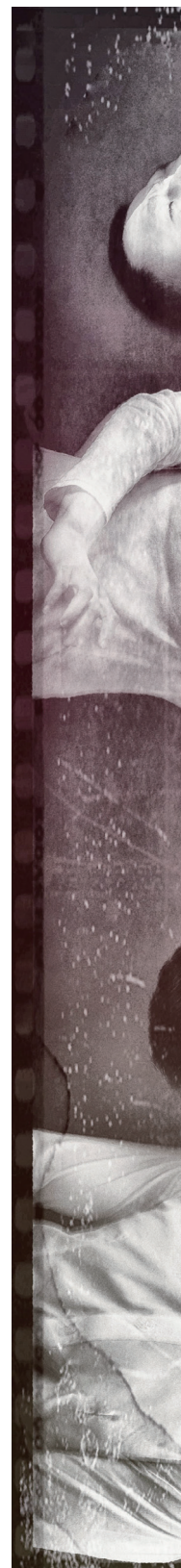
# 양길호

상명대학교 무용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재학

무용

### 활동실적

-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협력예술가 선정  
춘천마임축제도개비 어워드 공연 〈Excuse me〉
- 2011~2012 벨기에 Les Ballets C de la B 무용단 단원
- 2010 독일 Philip Bergmann 무용단 단원
- 2009 벨기에 Serial Dreamer Company 〈IN VINO〉 공동안무 및 출연
- 2009 독일 Setanztheater 〈Groundgondroll...〉 출연
- 2009 프로젝트 소로 〈Le Deux〉 안무 및 유럽투어
- 2008 프랑스 EX Nihilio 〈도시의 여정〉 출연
- 2007 온몸 컴퍼니 〈핏줄〉 안무 및 출연
- 2007 제1회 CJ 영 페스티벌 무용부문 선정







# 허의 기억

공연일시 2014.02.19(수)~02.21(금) 7시30분  
공연장소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주요 참가자 안무·연출\_ 양길호 출연\_ 김수진/노제현/박성울/이학 드라마투르기\_ 정범철  
무대디자인\_ 이창원 조명디자인\_ 이재성 음악감독\_ 양승환  
영상설치·시각디자인\_ 권아람 사진\_ Chad Park 영상\_ 김성민  
기획·제작\_ 서상혁 자문\_ 남주경 코디네이션\_ 정유진/정윤민  
영상편집\_ 김원모 영문번역\_ 정지윤 스토리보드\_ 김우중 진행\_ 변은지/윤지혜

## 기획의도

'허의 기억'은 김희진 소설 '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소설에서 허는 무심히 뱉어내는 말과 미각을 비롯한 감각적 언어들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허가 빠져나와 하늘을 날아다니며 과거에 뱉었던 말들을 한다. 인간들은 말을 하고 미각을 느끼기 위해서 잠자리채로 허를 잡아 마구 삼킨다. "그들이 삼켜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서 '허의 기억'은 시작되었다. 과거를 돌이키던 중 끊임없이 떠오른 상념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향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의 흔적과 한 때 무성했던 말들의 묘지에 묻혀진 기억의 고풍머리에 여전히 존재할 것 같은 미지의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반드시 떠나야만 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변해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다. 기억의 한 쪽에 묻어 두었던 추억을 일깨워 현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작품설명

기억 속의 사람을 찾아가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문득 그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주변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다. 마치 기생충들처럼 자신의 몸을 갉아 먹는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이것 또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무게처럼 느껴진다.

낮선 공간, 소리, 냄새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 속의 가려진 파편 이기에 말하자마자 사라지고 만다.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복반친 설움이 밀려와 통곡을 하여도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배경으로 들릴 뿐이다. 때로는 주변의 우연에 의해서 문득 기억의 잔해가 어지럽게 흩날리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진다. 과거의 그들이 먹어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머릿속이 비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온갖 기억의 조각들이다. 마치 허기진 듯 게걸스럽게 먹어대고 태연하게 뱉어내기를 반복한다.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기억에 각인된 행동과 말을 뱉어낼 뿐, 결국 본질은 찾지 못하고 그 겉만 맴돌 뿐이다. 사라져 버린 것은 비록 신기루가 되어 이제는 닿을 수 없지만 여전히 허는 불가사의한 환영에 갇혀 있을 뿐이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09

# 박종빈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다원예술

### 활동실적

- 2013 영화 <긴 밤>(가제)
- 2013 연극 <언더그라운드>(예술의전당 앞 제2지하보도, 동아연극상 후보작)
- 2012 연극 <공터>(후암동 409-163번지 앞 공터)
- 2011 뮤지컬 <광화문 연가> 무대영상(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2011 연극 <유년의 들> 무대영상(혜화동 1번지)
- 2010 영화 <Bird>(제15회 인디포럼 신작전)
- 2010 영화 <벌거숭이>(인디포럼 & 씨네21 15주년 기념 옴니버스 <이제 난 용감해질 거야> 서울아트시네마, 씨네코드 선재 상영)
- 2010 대안공간 반디 비디오작가 레지던시
- 2010 영화 <증발>(제7회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벌, 제5회 대안한단편영화제, 제8회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 2009~2014 DVOXAC(박재명, 박종빈)에서 공동작업 - 작, 영상, 미술, 연출
- 2009 영화 <Next day, Same time, Same place>(제10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 전야

공연일시 2014.02.20(목)~02.23(일)  
공연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주요 참가자 작·영상·연출\_ DVOXAC(박종빈/박재평) 조명디자인\_ 고희준  
사운드디자인\_ Jimmy Sert 안무\_ 권령은 미술\_ 박길종 기획\_ 최윤희

## 기획의도

외부의 상황이 개인의 내면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 작품설명

기상청에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홍수경보를 발표한 후, 뉴스와 인터넷은 관련 기사들로 도배가 된다. 주인공 남녀는 홍수에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창문에 비닐을 치고, 비가 그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한다. 두 사람은 집안에서 평소와 다른 소소한 일상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것은 2013년 여름에 실제 집 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전야'의 시놉시스다. 우리는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하여, 무대를 스페이스 필룩스로 옮기고 배우가 등장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 중이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0

# 윤미현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과 재학

연극

### 수상경력

- 2012 <우리 면회 좀 할까요?> 한국희곡작가협회 신춘문예 당선
- 2012 <평상> (2012 희곡아 솟아라), 서울연극협회 희곡공모 당선

### 활동실적

- 2013 <젊은 후시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가지원(AYAF)  
공연예술부문 극작가 선정
- 2012 <텃밭길러> 한국공연예술센터 차세대공연예술가 육성프로그램  
<봄 작가, 겨울 무대> 작품 선정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윤미현**

「젊은 후시딘.어 러부 스토리」

작 **윤미현** 연출·윤한솔 음악·민경현 조명·최보윤 의상·이유선 조연출·김미현 출연·곽동현/김효영/이정호/이필주/임정희/전선우 정양아 황미영 사진·박정근 그림아트펀드 아코예술극장소극장 2014년2월21일부터3월2일 화수목금8시 토3시7시 일3시 그린피그 22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연 수입의 일부는 "예술나무운동"에 기부됩니다.

문의 02-522-0000 팩스 02-522-0001 E-MAIL arkofestival@naver.com 아코예술극장소극장은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연합니다.

# 젊은 후시딘 - 어 러부 스토리

공연일시 2014.02.21(금)~03.02(일) 화~금 8시, 토 3시, 7시, 일 3시  
공연장소 아코예술극장 소극장

주요 참가자 작 **윤미현** 연출 **윤한솔** 음악 **민경현** 조명 **최보윤** 의상 **이유선** 조연출 **김미현** 출연 **곽동현/김효영/이정호/이필주/임정희/전선우/정양아/황미영** 사진 **박정근**

## 기획의도

### 집도 테이크 아웃이 된다니 그래

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지. 정상적으로 매일 일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살아내기가 힘이 든다. 쌀조차도 담길 쌀통이 있고, 간장도 담길 간장종지가 있고, 하물며 똥도 변기통에 들어가는데. 정상적이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공간이 없다. 그거야말로 참 별일인 것이다. 들어가서 살 곳이 없어, 떠도는 사람들. 하다못해 우유도 종이 팩에 담기는데 말이다.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서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사람 몸에서 떨어진 살비듬이 되어 여러 곳을 떠돌며 살고 있다.

## 작품설명

가족이 있다. 젊은 후시딘. 젊은 후시딘의 아빠, 엄마. 그리고 아주 일찌감치 집 나간 동생 앳된 신신파스와 앳된 마데카슬. 그리고 이 가족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도도한 여자. 도도한 여자는 젊은 후시딘의 가족이 이십 년째 살고 있는 월세 방 주인이다. 이 여자는 집이 있어서 늘 도도할 수 있고, 도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다. 도도한 여자는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후시딘네 집으로 온다. 도도한 여자의 횡포에 낮이 나간 후시딘 가족은 정자가 있는 공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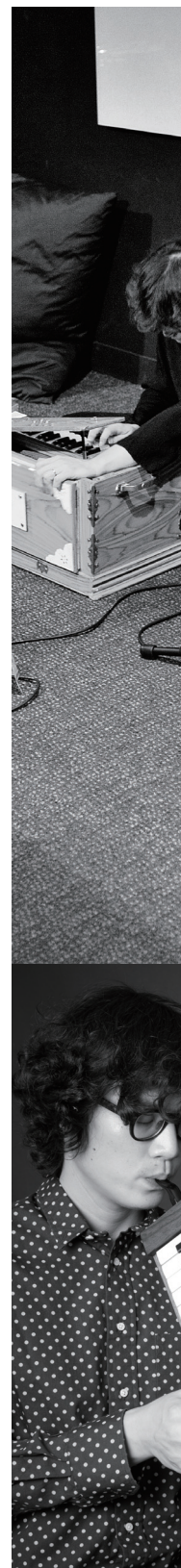
# 양승환

서울대학 국학과(작곡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수료  
New York University 석사  
(Music Theory & Composition 전공)

## 전통예술

### 활동실적

- 2013 전북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 전곡 작, 편곡(전주세계소리축제)
- 2013 정길선 가야금창작음악 시리즈 VIII <Qawwali Sanjo> 발표(국립국악원 우면당)
- 2013 2013 The 10th Penang Island Jazz Festival <바이날로그> 공연
- 2013 전주세계소리축제 <바이날로그> 축하 공연
- 2013 북촌창우극장 천차만별 콘서트 <바이날로그> 초청 공연
- 2013 KBS 국악관현악단 편곡(국악한마당 천회특집, 아리랑 대공연, 제216회 정기연주회 등)
- 2013 한국-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공연 인도 영화음악 3곡과 인도국가 국악관현악 편곡(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2013 서울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위촉 <아리랑2013> 발표(국립국악원 예악당)
- 2013 Korean Qawwali Group <TAAL> 10회 이상 단독 공연(문화역서울 284, 북촌 한옥마을, 레인보우 등)
- 2013 서울시청소년국악단과 월드뮤직앙상블 이도 협연 <세종이야기> 전곡 편곡(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2013 거문고연구회 <동보악회> 정기연주회 위촉곡 <신미도> 발표(국립국악원 우면당)
- 2013 Soungwhan Yang's Composition Recital(Black Box Theater in New York)
- 2012 NYU Graduate Composer Series(Jack Quartet/NYU in New York)
- 2012 제314회 서울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청연> 거문고 협주곡 <Springtime> 발표(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 2012 가야금 연주자 정길선 Project Ensemble <Sound of Spirit> 위촉 <Han & Heung>, <Jazz Sanjo> 발표 및 음반 발매
- 2011 <Flying Arirang> Korea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Tenri Cultural Institute in New York)
- 2011 KTPAA the 17th Annual Concert(뉴욕국악협회, Symphony Space in New York)
- 2011 <유경화 철현금 양승환을 만나다> Concert(서울교대 종합문화관)
- 2011 젊은 국악 축제 <두꺼비 노래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국립국악원 예악당)



# 양승환의 집단 즉흥 창작

공연일시 2014.02.21(금) 7시30분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약당

주요 참가자 출연\_ 양승환/이영섭/윤서경/구성모 외 10명

## 기획의도

2013년도 차세대 예술인력육성사업 전통예술 분야에 선정된 국악작곡가 양승환. 그는 미국 뉴욕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력과 전통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보다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음악을 선보이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기존의 작곡 발표회 형식을 과감히 벗어 던졌다.

다양한 장르의 탑클래스 뮤지션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결성한 후, 솔로 듀오, 트리오, 쿼텟... 섯텟 등 다양한 형태로 그룹핑하여 세미나와 워크샵, 집단즉흥, 즉흥창작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즉흥작곡(composed improvisation or improvised composition)의 작곡법을 도입한 양악기들이 포함된 새로운 포맷의 악기 편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양승환의 집단 즉흥 창작 음악'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가진 전통음악 컨텐츠를 만들어가며, 창작 국악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 작품설명

1. Solo 전통음악의 장단과 선법 등을 활용. 작곡가 양승환의 즉흥 솔로 피아노 연주
2. Duo 피아노와 단소와의 완벽한 Improvised Composition
3. Trio 파키스탄의 까왈리(Qawwali)와 한국의 서도 소리와의 만남
4. Quartet 21세기의 첨단 Technology와 시나위의 만남
5. Quintet 한국의 전통음악과 Rock 음악 정신과의 만남
6. Sextet 3성부의 작곡되어진 합창 파트와 해금, 아쟁, 키보드의 작곡되어지지 않은 파트와의 어울림
7. Septet & More 퓨전국악 형태의 편성으로 시작, 점차 악기가 늘어나면서 집단 즉흥 방식으로 발전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2

# 이희란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erformance 실기 석사

## 다원예술

### 수상경력

- 2012 신진예술가상, 클레어 로슨& 사무엘 에데스 학회, 미국
- 2012 MFA Fellowship, 안나루이스 레이몬드 연구회, 미국

### 활동실적

-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파트너십 아티스트  
제스처어라마 〈ego〉 구성, 연출(청주국제공연예술제, 대학로 정보소극장)
- 2013 퍼포먼스 〈Blow it!〉 구성, 연출(안산국제거리극축제)
- 2013 비디오 〈Tuition Laundry〉 공동 구성, 연출  
(‘YANS & RETO’ action art페스티벌, 뉴욕, 미국)
- 2013 퍼포먼스 〈The Red Bull〉 구성, 연출(그레이스 익스비전 스페이스, 뉴욕, 미국)
- 2013 연극 〈꿈찍한 메에디아의 시〉 출연(연출 이성구)
- 2013 서울연극제 미래야 솟아라 부분 최우수상, 예술공간 서울
- 2013 퍼포먼스 〈Found of Trust〉 공동구성, 연출  
(브룩클린 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 구와너스 빌름, 뉴욕, 미국)
- 2012 퍼포먼스 〈The Power of the Creation〉 연출(로버트월슨, 출연 베르사유, 프랑스)
- 2012 퍼포먼스 〈Have Received Orders Not to Move〉 구성, 연출  
(워터밀 센터, 사우스햄튼, 미국)
- 2012 퍼포먼스 〈Ping and Pong〉 구성, 연출(IMPACT 퍼포먼스 페스티벌, 시카고, 미국)
- 2012 퍼포먼스 〈Blow it!〉 구성, 연출(Diverse Universe 퍼포먼스 페스티벌, 뉴욕, 미국)
- 2011 퍼포먼스 〈I Have Received Orders Not to Move〉 구성, 연출  
(락번드아트뮤지엄, 상하이, 중국)
- 2011 퍼포먼스 〈In braids〉 구성, 연출(New Blood 퍼포먼스 페스티벌, 시카고, 미국)
- 2011 퍼포먼스 〈Tuition Laundry〉 공동 구성, 연출(SAIC, 시카고, 미국)





# 역사의 현재

공연일시 2014.02.24(월)~02.25(화) 7시 \* 전시 1시~7시

공연장소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주요 참가자 구성·연출\_이희란 영상·사운드 디자인\_한원균 기획\_김주아  
협력리서처\_박보영/김주아 연기지도\_한정수 퍼포머\_최미령/최성식/변혜림/  
장준현/이은지 기획팀\_유진희/최연수 조연출\_이민석/오미연

## 기획의도

역사는 인간관계와 그 속에 발생하는 현상들의 과정, 기록, 자취,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는 역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시적 실물이 있다. 그곳은 거대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기록이 묻어  
있고, 소소하고 서민적인 자취가 남아있다. 바로 구 서울역사이다. 구 서울역사는 그것의 독특한  
건축양식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 동안 서울과 통하는 관문으로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가  
지며, 그곳에 발걸음을 했던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 등 비가시적인 양상들이 구 서  
울역사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현존의 의미를 가지게 하였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 서울역사의 옛 이야기를 현재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한 그 곳에서 구현함으로써 상실된 장소의 의미를 예술적 언어로 재생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프  
로젝트 진행 과정 중, 구 서울역사는 대한민국 근대 시공간의 역사를 간직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현대사회에 우리가 겪는 비극적 상황을 서로 위로하고 소통하며,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외된 장소가 아닌, 화합의 장소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 낡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예술 공간과 역전 광장 그리고 현대예술에  
서 가까이 근접한 예술 창작 활동과 사회 활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충돌하고, 만나고, 엮히는 것  
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공간예술을 창작하고자 한다. 행위의 자율성을 가진 관객들  
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끌어 내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 생산의 거점으  
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인 구 서울역사에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 작품설명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그곳엔 여자 또는 남자가 누워있다. 아니 잠들어 있다.  
방문자들의 손에는 잊혀진 이야기가, 상실된 꿈이 들려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꿈을 읽어  
내듯, 어쩌면 그들의 꿈을 만들어내듯 그들 주변을 서성인다. 잠들어있는.. 꿈을 꾸는 사람  
은 누구이며, 그 주변을 서성이는 이는 누구인가.. 모든 것이 리얼리티로 돌아오는 순간, 예술  
과 일상,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 중심과 주변, 배우와 관객...모든것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3

# 이은지

연세대학교 작곡과  
슈트트가르트 국립음대 작곡가  
그라츠 국립음대 작곡과 교환장학생  
칼스루헤 국립음대 작곡과 최고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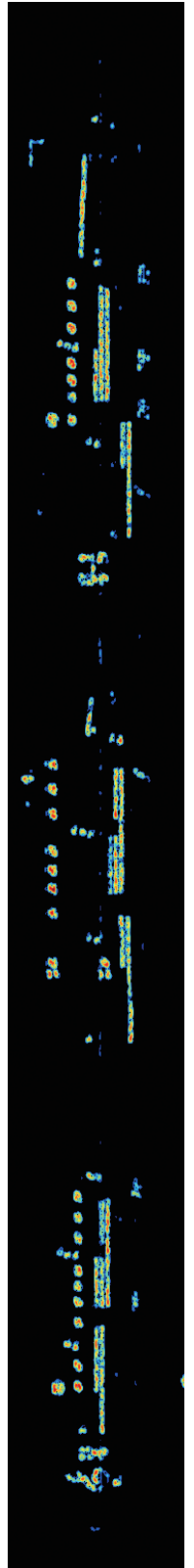
음악

### 수상경력

2013 칼스루헤 국제 콩쿨 1위 입상

### 활동실적

2013 Hoepfner 장학재단 위촉곡 발표  
2013 ZeitGenuss Festival 작품 발표  
2011, 2013 임플스현대음악제 참가 및 작품선정발표  
2011 Bruecken Festival 작품 발표  
2010 <새로운 적들> 전시 작가로 참여  
2009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 Off concert 작품 발표  
2009 Kunstfestival im Kloster Volkenroda 작품 선정 및 발표



# 시간의 향기

공연일시 2014.02.27(목) 8시  
공연장소 올림푸스홀

주요 참가자 작곡\_ 이은지 안무 및 무대감독\_ 노경애 지휘\_ 최수열  
연주\_ 권영인 나레이터\_ 백성철 테크니션\_ 윤제호

## 기획의도

음악 안에 언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풀어 나간다. 언어의 음악화를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극대화하고 언어의 의미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음악적 사고들이 어떻게 새로운 형식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 작품설명

한병철 선생님의 에세이, 〈시간의 향기〉 중 발췌된 텍스트(독어, 한국어)가 작품에 사용되며 전체 근간을 이룬다. 발췌된 텍스트는 나레이터를 통해 말해지고 녹음된 독어와 한국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어 제시된다.

언어의 음악화를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극대화하고 언어의 의미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의 섬세함과 문법적인 사고를 곡의 음색과 발전 형식에도 응용하였다.

플루트 솔로와 전자음악을 위한 〈ParflierII〉에서는 언어의 뉘앙스를 다채로운 곡선의 움직임과 음색을 통해 표현하였다. 5중주 〈Tmesis〉에서는 분어법(복합어 등의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하는 것에 영감을 얻어 제한된 재료로 다양한 음악적 효과와 패턴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4

## 박우재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기악전공) 예술사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기악전공) 예술전문사

### 전통예술

#### 주요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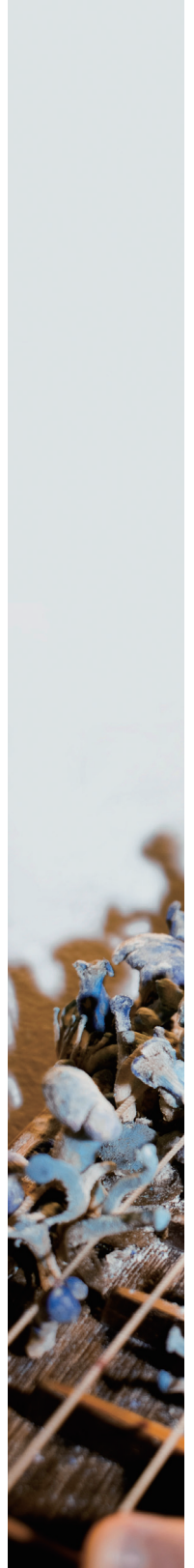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창작전공 출강  
현대무용단 Dance Theater Chang 음악감독  
음악극집단 바람꽃 동인

#### 수상경력

2002 제2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1999 제17회 전국국악대제전 고등부현악부문 교육부장관상

#### 활동실적

2013 <4D> 편곡, 연주(안무 Sidi Larbi Cherkaoui)  
(Belgie Antwerp, Germany Ludwigshafen, Germany Ludwigshafen)  
2013 <Ambient World Concert> 작곡, 연주(W 스테이지 - 북촌뮤직페스티벌)  
2013 무용 <Headache> 작곡, 연주, 움직임(안무 김남진)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SiDance, 성균소극장)  
2013 연극 <레이디 맥베스> 음악시중 역할(연출 한태숙)  
(고양아람누리 새라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2012 무용 <Headache> 작곡, 연주, 움직임(안무 김남진)  
(Singapore Good Man Theater, China Guangzhou)  
2012 <경기도 문화의전당의 국악열전 시리즈> 박우재, 허익수편(경기도 국악당)  
2012 <TEZUKA> 작곡, 편곡, 연주(안무 Sidi Larbi Cherkaoui)  
(Israel TelAviv Opera, Norway Oslo Baerum Kulturhus, Netherlands Amsterdam,  
France Marseille, France Paris La Villette, Germany Koln Opera,  
Germany Wolfsburg, Luxembourg, New Zealand St James Theatre,  
Japan Tokyo Bunkamura, HongKong, Italy Rome)  
2012 <런던한국문화축제 오색찬란 바람꽃 콘서트> 작곡, 연주  
(London Southbank Centre's Pucell Room)





# 박우재거문고더하기 - 이상변이

공연일시 2014.02.27(목)~02.28(금) 목 8시, 금 4시, 8시  
공연장소 문화역서울284 RTO공연장

주요 참가자 작곡·연주·연출\_ 박우재 구성 및 연출\_ 김은영 목소리\_ 박민희  
무대미술\_ 이태섭 의상\_ 홍인수 조명\_ 김영빈 음향\_ 김병국 의상\_ 서보형  
기획홍보\_ 비온뒤 사진·인쇄물\_ 윤재원 조연출\_ 김빛나

## 기획의도

### 술대를 버린 거문고

혹자는 술대를 통한 전통적 연주법을 버림으로 악기의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시도들이 거문고의 음악적 한계의 확장이라 생각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거문고라는 이름을 벗어난 새로운 악기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거문고를 활로 연주하거나 껍을 제거하고 하모닉스만으로 연주하는 등 연주법을 발전시켜 본격적인 연주가 가능하도록 연구해왔다. 이 연주법들만이 갖는 독특한 음색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은 또 다른 한국음악의 진화이라.

## 작품설명

연주자 박우재의 자작곡으로 이루어질 이번 공연은 다양한 음색과 연주법의 자유로운 박우재스타일의 연주이다. 정가바탕의 보컬리스트 박민희씨가 게스트로 출연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티스트들의 만남 또한 주목된다.

### [곡 프로그램]

1. 밀도드리
2. 흥청 -그 새빨간 거짓말
3. 수동
4. Blue Rain
5. 표류
6. 목소리와 거문고(with, 박민희)
7. 이상변이
8. Caress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5

## 손다혜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국악 작곡 전공) 예술사  
한국종합예술학교 협동과정  
음악극 창작과(작곡 전공) 예술전문사

### 전통예술

#### 수상경력

- 2013 전국 연극 및 뮤지컬 대본 공모전 <처음이자 마지막> 대상 수상
- 2011 생활국악 대국민 공모(총 3곡 당선)
- 2007 한국가요제 프로젝트 그룹 '비' <비가> 대상

#### 활동실적

- 2013 뮤지컬 <The Colors> 작, 편곡 및 음악감독
- 2013 국악 뮤지컬 <운현궁 로맨스> 작, 편곡
- 2012 뮤지컬 <처음이자 마지막> 작, 편곡
- 2012 영화 <7비> 음악 참여
- 2012 뮤지컬 <내추럴 액터스> 작, 편곡 및 음악감독
- 2011 판소리 음악극 <진채선> 작, 편곡
- 2011 뮤지컬 <처음이자 마지막> 작, 편곡
- 2010 제주 MBC 창사 42주년 라디오 특별기획 국악뮤지컬 <장한철 표류이야기> 작, 편곡
- 2010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일부 곡 작곡
- 2010 애니메이션 <사바의 꽃> 주제곡 작곡
- 2009 뮤지컬 <바리> 작곡 및 음악감독

# 작곡가 손다혜의 음악 그리고 이야기

공연일시 2014.02.27(목)~02.28(금) 8시  
공연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주요 참가자 작곡\_ 손다혜 작가\_ 한아름 연출\_ 정종임  
연주\_ 서정민/김민정/조엘라/박대원/김태정/최휘선 외 10명

## 기획의도

이번 공연은 작곡가 손다혜가 그 동안의 음악극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만든 '음악이 중심이 되는 음악극'이다. 기존의 뮤지컬에서는 배우의 노래, 연기, 대사가 주는 극적전달이 크지만, 이번 공연은 연기와 대사를 최소화 하면서, 심지어 목소리도 하나의 악기로 사용되어 음악을 통해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최대한 전달해보고자 한다. <바리와 한 남자> 이야기에서 가장 강렬하고 음악적인 '순간'을 찾아 곡을 구성, 이야기에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악기의 구성과 음악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다양함을 보여줄 것이다.

## 작품설명

바리와 한 남자. 한 남자와 바리 청년실업의 압박감을 못 이겨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한 남자.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그런 부모를 살리고자 생명수를 구하려 가는 바리공주.

이 두 명의 인물에게서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와 이를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는 험난한 과정과 고통들이 서로 많은 점에서 그 모습이 닮아있다. 이 두 명의 캐릭터는 현재 우리 사회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들 스스로 극복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는 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

무엇이 이 한 남자를 옥상 끝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들에게 감춰진 고통들. 그와 반대로 너무나도 끔찍한 지옥과 영혼들을 만나고도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바리공주. 다르기도 하고 닮아있기도 한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과 사회를 치유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16

# 김소은

미추 연극학교  
상명대학교 연극학과(연기전공)  
PARIS ECOLE INTERNATIONAL  
THEATRE CORPOREL STUDIO  
MAGENIA(신체연극, 마임 전공)

## 다원예술

### 활동실적

- 2013 과천 한미당 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 해외 공식 초청작(프랑스 극단 크타(ktha))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배우
- 2013 과천 한미당 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벌,  
고양 국제 호수 축제, 국내 공식 초청작 〈티타니아〉 움직임, 연출
-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해외 공식 초청작 〈아프로디테〉 라푸라 델 바우스 협력 공연, 배우
-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식 초청작 〈빛, 날다〉 버티컬 댄스 퍼포머
- 2012 여수세계EXPO 공식 초청작 〈카피〉 버티컬 댄스 퍼포머
- 2012 남산NART 페스티벌 장 극단 거미 김제민 연출 〈겨울〉 배우(극단 거미, 남산 예술센터)
- 2011 고양호수예술축제 공식 초청작 〈카피〉 버티컬 댄스 퍼포머
-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식 초청작 〈레인보우 드롭스〉 라푸라 델 바우스 협력 공연, 배우
- 2010 댄스2000 씨어터 제로, 마임 솔로 공연
- 2010 연극 〈난 새에게 커피를 주었다〉 움직임, 배우(극단 거미, LG 아트홀)
- 2010 물레 아트페스티벌 〈움직임 극 무엇을 보시나요〉 연출
- 2010 세계무용축제 춤추는 도시 움직임 극 〈놀라지 마세요〉 연출





# 경계

공연일시 2014.02.28(금)~03.02(일) 금 8시, 토 4시, 7시30분, 일 4시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주요 참가자 연출·구성\_ 김소은 안무\_ 전수진 조연출\_ 김소희  
출연\_ 이정국/이수윤/전수진 설치미술\_ 임선영  
사운드디자인\_ 전광표  
버티컬 댄스장비 및 기술디자인\_ 프로젝트 날다 외 다수

## 기획의도

작품 '경계'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모티브로 삼아 버티컬 댄스라는 장르를 도입, 줄이라는 소재로 움직임과 설치 미술, 소리의 융합을 시도, 경계와 균형사이에 일어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속성과 공간 그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경계를 공간의 'Displacement'라는 개념을 사용, 현재 보호받고 있는 우리가 사는 공간 사물, 사람을 이동시켜 그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 발견을 통해 익숙한 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 작품설명

끊임없이 매달려 살아간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고 버둥거릴까?  
답이 없다. 명확하지도 못하다  
하지만 버릇처럼 웃고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줄에 매달린 우리들은 위태로워 보인다.  
정육점에 걸린 소 뿔다리 같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말은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 가운데 보존 되는 삶이다.

"다만 너 자신이 스스로 쥐여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라, 쥐여느리에게 그가 하는 일의 목적을 묻게 되면, 너는 동시에 쥐여느리 때를 말살시키게도 될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

##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 참가후기

#### 구자혜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고 싶으나, 여건상의 문제로 혹은 자신 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턱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을 통해 여태까지 나의 작업을 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을 다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동시대 작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공연을 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AYAF3기들과 작업의 동지로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소정

작가로서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을 성찰하며 이야기를 쓰는 과정 자체를 연구하고 뜯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연극 제작을 전제로 하는 기획에서는 절대로 해볼 수 없는 시도였고, 이런 연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연리욱

2013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듣고 싶은 음반을 듣고, 보고 싶은 공연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까워 바쁘게 보고 바쁘게 다녔습니다. 공연을 만들면서 영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잔뜩 고를 때의 기분, 프랑스 살롱 축제에서 반짝이는 공연들을 마주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리며, 일년이 벌써 지나갔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올 한 해 차곡차곡 쌓은 공간에서 앞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윤미현

국가의 세금으로 예술을 하게 되는 셈이니 나는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무궁한 생각과, 깊은 밤마다 한 개인으로서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 이겨야겠다는 번뇌가 오고갔지만 때론 소리 없이 숨 쉬는 작은 풀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써야 한다는 바른 생각을 했고, 예술이 소리 없이 숨을 쉬어 인간의 삶에 바람을 써어 주면 좋으련만, 이라는 생각도 함께 했으며,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자빠져있던 나 같은 작은 풀이 이 사업을 통해 바람을 쐬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그 바람을 조금 선선하게 느꼈으면!

#### 양길호

젊은 예술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내고 공연을 제작하는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AYAF 3기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움의 선상에서 제가 탐구하는 생각과 추구하는 세계를 무대 언어로 관객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우면서도 반면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현재 '허의 기억'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대화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생겨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한 프로페셔널한 협업을 통해 작품 제작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점차 시너지 가득한 결실로 빚어져 최선에 의한 최고의 작품으로 꽃피어날 수 있으리라 가슴 설레며 예감해 봅니다

#### 김주희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을 통해서 큰 산 하나를 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힘들었지만 값진 산행이었습니다.

#### 이은지

지난 한해는 나에게 작곡가로서 많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작업들을 실현시킬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시도에 보고 싶었지만 선뜻 해볼 수 없었던 일들도 개인 연구지원과 해외체험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작곡가로서 악기를 이해하는 일 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악기들을 배우고 스스로 연주하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지금 현실의 나를 더욱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 시간 공연의 컨셉과 내용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었지만 여러 분야의 분들과 협업을 진행하며 좋은 피드백도 듣고 그 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일 년은 나에게 그 이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작곡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작가로 성장하는데 이 시간이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고 도와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드리며 특히 박성은 과장님의 많은 도움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김지선

공연을 하기 위해 필요한 1부터 10까지의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꾸려보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작업 제작뿐만 아니라 연구조사와 현장체험에 대한 지원 덕분에 단지 한 번의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작업적 소양을 키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이 짧았던 게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의 작업에 밑거름이 될 큰 도움을 받았니다.



### 박우재

무언가를 만들어 내길 뜨겁게 열망하는 젊은 나/우리에  
게 기회를 주는 것만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경  
험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의 멘토링을 통  
한 끊임없는 점검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이  
번 사업의 도움으로 분명 나/우리는 성장 할 것이고 10  
년 후, 20년 후 나/우리는 분명 각자의 색깔로 존재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진화될 이 사업과 다음 예술가들  
또한 기대됩니다.

### 손다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이란 짧지만 긴  
시간을 사업에 참여해보면서 이번 지원 사업만큼 창작  
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공연 지원을 해주는 기회는 없  
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다양한 워크숍  
기회도 많았지만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하고 싶  
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해보면서 창작 작업 이외  
의 공연 전반적으로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해보지 못  
한 경험을 쌓고 여러 방면으로 도전했다는 의미가 가장  
뜻 깊은 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 이희란

4년 동안의 미국 유학으로 국내 창작활동 공백기를 가  
졌던 저에게 한국예술문화위원회의 2013년도 공연예  
술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은 저에게 국내에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불을 지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진 공연 예술  
가들과 전문가들의 만남을 통해 예술적 사고의 교류와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신진 예  
술가의 창작 활동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 구현을 위해  
한국예술문화위원회의 2013년도 공연예술분야 차세대  
예술인력육성사업 프로그램은 가장 가까운 후견인이자  
협업자로서 함께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양승환

2013 차세대예술인에 선정된 것에 대해 매  
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연을 올리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과 멘토  
선생님들, 박성은 과장님, 오준석 담당 피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황홀했  
던 파리에서의 해외체험활동,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만남과 협업, 전문가 선생님들  
의 수준 높은 강의와 조언 등은 예술에 대한  
저의 식견을 풍부하게 해주었고, 마침내 오  
랜 시간 꿈꿔왔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집단즉흥창작 공연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  
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신진 예술가들에게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최은진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신뢰와 존중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잠재력 있  
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작업  
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아람

예능이나 스포츠에서 신인상은 인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상입니다.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는  
나에게 부족한 실력으로 그 동안 활동하여 받은 신인상  
이자 첫 걸음이나 다름없습니다. 간신히 차세대예술가  
로 선정되어 멘토 선배님들께 좋은 가르침을 받았고, 흥  
미로운 워크숍과 아르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제  
세상과 이아람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  
다. 다시 주어질 없는 신인상을 수여받은 신인의 마음으  
로,

### 박종빈

지난 6개월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최종 작품을 위  
한 두 차례의 프리젠테이션은 작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동료  
들은 어떻게 작품을 진행하는지 또 어떤 점이 나와 다른  
지 등을 보면서 내 작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수 있었다. 한편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평  
소 꼭 가보고 싶었던 베를린을 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  
서 많은 공연과 전시 등을 접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나 DVD등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자료들은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작품발표라는 마지막 과제  
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을 통  
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소은

뛰어난 재능과 예술성을 지녔음에도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많다  
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이러한 차세대 예술인 육  
성사업은 꼭 필요하며 더욱 확장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작품제작에 관련된 지원은 물론 다양  
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 본인에게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지원사업과 교  
류의 장이 더욱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RTISTREE**

**[www.artistree.or.kr](http://www.artistree.or.kr)**